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8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5:1-7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43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3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 심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체 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누그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저희를 통해 예수님만이 존귀함 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순종함으로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군으로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 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14:21-24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사랑으로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봉 헌(offering) 5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11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 니다.
2.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4. 교우소식
 - 어제 이경자집사님 남편 Mr. Thompson의 추모식(Memorial Service) 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 한국 방문 : 임현정사모(19일), 이진국권사·김성애성도(24일)
 - 김희원권사님과 이춘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묵상〉 요한복음 14:21-24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24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1,23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유지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으며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역사하여 결국에는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인격과 성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어느덧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집 센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나를 통해 반영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잠식해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철저히 인격적이고 영적이며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